

전남광주 첫 수출기업 521곳…수도권·동남권 편중

관세청, 2025년 첫 수출기업 분석

수출액 1억4400만달러…8개 권역 중 5위 그쳐
석유·석탄 중심 수출구조…수출 저변 확대 과제

지난해 전남광주에서 처음 수출시장에 뛰어든 기업이 500곳을 넘어섰지만 수도권과의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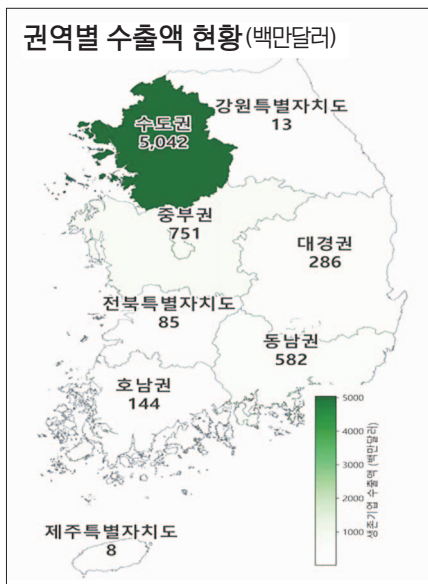
첫 수출기업 수와 수출액 모두 8개 권역 가운데 5위에 머문 데다 기업당 평균 수출액도 전국 평균을 밑돌면서 지역 수출 저변을 넓히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5년 첫 수출기업 분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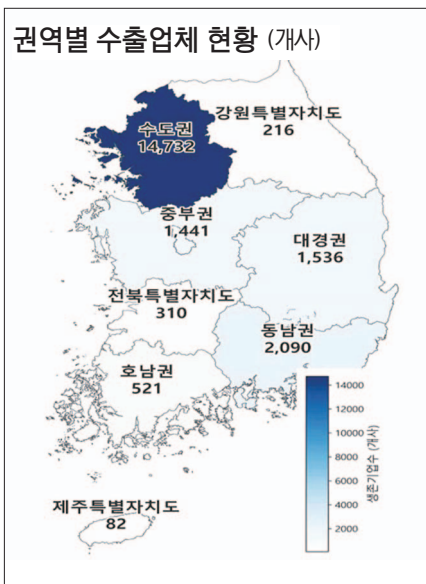
광주 첫 수출기업은 모두 521개사로 집계됐다.

첫 수출기업은 직전 3년간 수출 실적이 없다가 해당 연도에 처음 수출 실적을 기록한 기업을 말한다.

전남광주 첫 수출기업 수는 수도권(1만4732개사), 동남권(2090개사), 대경권(1536개사), 중부권(1441개사)에 이어 8개 권역 가운데 다섯 번째였다. 전북은 310개사, 강원은 216개사, 제주는 82개사였다.



특히 전남광주 첫 수출기업 수는 수도권의 28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동남권과 비교해도 4분의 1에 불과해 신규 수출기업의 수도권·동남권 편중 현상이 뚜렷했다.



수출액에서도 격차가 컸다. 지난해 전남광주 첫 수출기업의 수출액은 1억4400만달러로 수도권 50억4200만달러, 중부권 7억5100만달러, 동남권 5억

8200만달러, 대경권 2억8600만달러에 이어 다섯 번째에 그쳤다.

수도권 첫 수출기업의 수출액과 비교하면 약 35분의 1 수준이다. 전북은 8500만달러, 강원은 1300만달러, 제주는 800만달러로 집계됐다.

수출 품목은 기업 수와 금액 기준에서 차이를 보였다.

전남광주에서는 기계·컴퓨터를 수출한 기업이 가장 많았고 전기제품, 플라스틱, 자동차가 뒤를 이었다. 반면 수출액 기준으로는 석유·석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무기화합물, 자동차, 플라스틱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계·컴퓨터와 전기제품 분야에서는 비교적 많은 중소기업이 수출시장에 진입한 반면 수출액은 여수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지역 주력산업인 석유·화학 분야에 집중된 결과로 풀이된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첫 수출기업이 1만9746개사로 전년대보다 3.7% 증가하며 최근 5년 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수출액도 전년 대비 13.2% 증가한 69억달러로 2019년 이후 가장 많았다.

그러나 첫 수출기업 1만5885개사(80%)는 연간 수출액이 10만달러 미만이었다.

이들 기업의 평균 수출액은 2만달러에 그쳐 첫 수출 이후 거래처 확대와 수출 규모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첫 수출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국가는 중국으로 전체의 14.0%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 10.9%, 일본 7.5%, 베트남 6.4%, 유럽연합 5.3% 순이었다.

기업 한 곳이 수출한 국가는 평균 1.6개국, 품목은 평균 1.4개에 그쳤다.

정현이 기자 aura@gwangnam.co.kr

코스피 또 출렁…5%대 급락 6200대로

코스닥 2.4% 상승

코스피가 3일 5% 넘게 급락해 6200대로 밀려났다.

직전 거래일 1000p를 단숨에 끌어올린 코스피는 이날 338.00p(5.12%) 내린 6257.45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237.18p(3.60%) 하락한 6358.27로 출발해 장중 한때 6223.29까지 밀렸다.

앞서 코스피는 사흘간 이어진 폭락을 딛고 1001.89p(17.91%) 오른 6595.45로 장을 마치며 역대 최대 상승률과 상승폭을 기록했다.

지난달 31일 상한가(29.95%)를 기록한 SK하이닉스와 26.81% 폭등한 삼성전자가 각각 8.76%와 8.79% 급락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LG에너지솔루션(-3.66%), 삼성바이오로직스(-4.18%), 삼성생명(-7.70%) 등도 내렸다. 약세장에 미래에셋증권(-3.76%), 키움증권(-6.64%), 교보증권(-1.15%) 등 증권주도 하락했다.

반면 삼성전기(3.42%), 현대차(1.29%), KB금융(0.59%), 신한지주(1.99%), 한화에어로스페이스(0.22%) 등은 강세였다.

전장에서 무려 7조2410억원을 순매수,

한국 주식시장 방들을 견인했던 외국인은 이날은 '팔자'로 돌아서 2조8429억원을 순매도했다. 기관도 1조9477억원을 순매도한 가운데 금융투자(1조5561억원)와 투신(4733억원), 연기금(204억원) 등의 매도 우위가 두드러졌다.

개인은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홀로 4조6531억원을 순매수했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4.03% 급등했던 일본 닛케이 255 지수는 이날 0.94% 하락했다.

대만 가권지수는 지난달 31일 7.98% 급등한 데 이어 이날도 0.62% 상승했지만, TSMC는 직전 장에서 9.98% 급등한 여파로 2.27% 급락했다.

반면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7.59p(2.44%) 오른 737.35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가 조정받는 사이 코스닥 시장으로 순환매가 이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직전 거래일 11%대 급등에 이어 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 오전 한때 5분간 프로그램 매수호가 효력이 정지되기도 했다. 올해 들어 29번째 코스닥 사이드카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337억원, 1660억원 순매수했으며 외국인은 2094억원 순매도했다.

김은지 기자 eunzy@

‘단일레버리지 대책’ 이틀만에 거래 10분의 1로

16개 종목 총 1조2000억원 거래…개인 ‘팔자’ 전환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대책 시행 2거래일째인 3일 관련 거래대금이 상향 이전의 1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16개 종목의 거래대금은 총 1조2000억원대로 집계됐다.

이는 예탁금 상향 전 마지막 거래일인 지난달 30일 12조4000억원의 10분의 1 수준으로, 상향 첫날인 31일 3조원대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거래대금을 넘은 종목은 하나도 없었다. 순자산이 가장 큰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거래대금은 4226억원을 나타냈다. 지난달 30일 3조6000억원의 8분의 1 수준이다.

같은 날 5조원의 거래대금을 기록했던 SOL.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인버스2X 거래대금은 이날 1807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거래량 역시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의 경우 지난 30일과 31일 각각 4억8889만주와 1억1692만주가 거래됐으나, 이날에는 4400만주로 전 거래일보다도 25% 수준에 그쳤다.

그동안 이들 레버리지 종목을 사들였던 개인들은 지난달 31일에 이어 이날에도 순매도세를 이어갔다.

개인은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와 SOL.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인버스2X는 235억원과 303억원어치 팔아치웠다. 이들 두 종목은 개인 순매도 4위와 3위에 올랐다. KODEX 삼성전지단일종목레버리지와 TIGER.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도 각각 136억원과 65억원 순매도를 기록했다.

이날 이들 16개 종목 중 개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ETF는 PLUS 삼성전지단일종목레버리지도 2억원에 불과했다.

이날 14개 레버리지 ETF는 13~18% 하락했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인버스 ETF는 각각 23%와 12%대 상승 마감했다.

연합뉴스



전남광주통합특비시는 3일 장성군, 미국 AI 인프라 전문기업 AI 패브릭(AI Fabrik), ㈜에이파사드와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했다.

장성 AI데이터센터 ‘가속도’…글로벌 기업과 맞손

AI 패브릭·에이파사드 참여…20MW 규모 구축사업 착수

전력·용수 기반시설 구축 협력…빅테크 입주기업 유치

전남광주통합특비시가 장성군에 조성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이 글로벌 AI 인프라 전문기업의 참여를 계기로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갔다. 향후 AI·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연계될 경우 지역 AI 산업 생태계 구축의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광주통합특비시는 3일 장성군, 미국 AI 인프라 전문기업 AI 패브릭(AI Fabrik), ㈜에이파사드와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월 16일 민관 합동으로 체결한 장성 AI 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의 첫 단계로, 20MW 규모의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글로벌 AI 인프라 구축 경험을 보유한 AI 패브릭이 새롭게 참여함에 따라 사업의 기술적·사업적 실행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는 AI 컴퓨팅 수요와 사업 추진 여건을 고려해 데이터센터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과 기업은 △AI 전용 데이터센터·AI 컴퓨팅 인프라 구

축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협력 △글로벌 빅테크 등 핵심 수요·입주기업 유치 △인재양성·고용창출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전남광주통합특비시와 장성군은 데이터센터 인허가를 비롯한 각종 행정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고, 전력·용수 등 필수 기반시설이 적기에 구축되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과 AI 데이터센터 경쟁력 강화 정책에 부응하는 사업이다.

향후 AI·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연계될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비가 대한민국 AI·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기영 전남광주통합특비시 부시장은 “AI 패브릭의 글로벌 기술력과 구축 경험, 에이파사드의 사업 역량, 장성의 우수한 입지 여건이 결합해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성군과 긴밀히 협력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번 협약이 좋은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비시와 장성군은 앞으로 기업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시작으로 AI 기업 유치와 관련 산업육성을 확대해 지역 AI 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중·고교 교사 대상 체험형 금융투자교육 연수

투자자교육협의회 내달 12일 개최…40명 선착순 모집

투자자교육협의회는 오는 9월 12일 중·고등학교 교사의 금융교육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투자교육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연수는 ‘수업에서 바로 쓰는 체험형 교수법 1DAY 마스터’를 주제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1일 집중형(6시간)으로 진행되며, 교실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체험형 교수법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투자자교육협의회는 “이번 연수는 이론과 체험이 결합된 혼합형 학습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파이낸셜 빌리지 체험, 실전형 콘텐츠(모의투자게임) 체험, 현직 중·고등학교 교사의 수업사례 공유를 결합해 수업 활용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전액 무료이며, 전국 사회과 담당 및 금융교육에 관심 있는 중·고교 교사 4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가신청은 오는 14일까지 투교협 홈페이지(www.kcie.or.kr)에서 받는다.

정현이 기자 aura@gwangnam.co.kr

LH광주전남본부, 대불산단 근린상업용지 공급

1필지 경쟁입찰…3년 무이자 분할납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 본부는 전남 영암군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근린상업용지 1필지(1116.6㎡)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3일 밝혔다.

공급 대상 토지의 예정가격은 약 3억7000만원이며, 계약금(매매대금의 10%)을 납부한 뒤 1년 기지 후 3년 무이자 분할납부 조건으로 대금을 납부할 수 있어 수요자의 자금 부담을 줄였다.

또 약정일보다 대금을 먼저 납부하면 선납 일수에 따라 연 5%의 선납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대불국가산업단지는 조선업과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관련 기업이 밀집한 전남 서부권의 대표 산업단지다. 최근 조선업 입찰 방식으로 공급한 화북으로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지원시설 용지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고 LH는 설명했다.

입주 신청과 자격 심사하는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진행되며, 입찰 신청과 개찰·낙찰자 발표는 13일 실시된다. 입주계약은 19일, LH와 의 분양계약은 20일부터 21일까지 체결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unzy@